

2021년 신년사

뉴노멀 시대, 변화의 주역이 됩시다.



글.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회장

존경하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저물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띠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흰 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일컬어 소처럼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소의 덕목으로 자주 인용되는 사자성어로 ‘우보만리(牛步萬里)’가 있습니다. ‘소의 걸음이 느리기는 하지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걸어서 만 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금방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위기 속에 나타날 기회에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지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였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이 일상이 되었

고, 여행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공연장이 하나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방송 제작도 많은 차질을 빚었고,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무관객 제작, 랜선 음악공연, 클라우드 제작 활성화 등 다양한 방송 포맷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촬영이 힘든 광고나 영화, 드라마 촬영에는 LED Wall을 사용한 버추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AR/VR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합회도 코로나19로 주요행사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5월 KOBA 행사 취소를 시작으로 해외 장비 전시회와 출장 교육은 물론 10월 체육대회와 송년회까지 모두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11월 컨퍼런스 ‘KOC’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겸해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늘 낮선 것이 새로운 기본이 되는 시대, 바야흐로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UHD 방송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어려운 지상파 방송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 지역 UHD 방송망 구축 계획을 2015년 계획(20~21년)대비 최대 2년(21~23년)으로 순연하고, UHD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형 서비스와 공익적 목적의 다채널방송(MMS) 시험방송을 허용하고, 방송·통신의 융합기술과 8K UHD 방송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보완을 환영하며, 지상파 방송사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시청자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UHD 방송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타겟 광고나 자율주행차를 위한 이동 서비스 등 5G망과 연동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24시간 뉴스, 재난방송, 온라인 교육 등을 다채널로 서비스한다면, 침체한 지상파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청자 복지도 기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합회와 함께 미래를

미디어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엔지니어에게 기존 RF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제작시스템은 테이프 기반의 선형 편집에서 파일 기반의 비선형 편집으로, 이제는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가 용이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방송 신호도 연결과 확장에 유리한 IP 신호를 사용하면서 IP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서버의 설계와 운영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UHD 방송을 제작하면서 데이터 용량이 급증하여 콘텐츠를 저장·관리하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배포·유통하는 기술, 시청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작되던 방송은 개인의 기호와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와 경쟁해야 합니다. 인공지

능을 통해 기사가 작성되고, 음악 작곡과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빅데이터로 모여서 AI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에 분석과 처리도 인공지능과 오픈소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동료들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의 역사는 방송기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혁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방송 엔지니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합회도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올해 KOBA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방송기술교육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로, ‘방송과기술’에서는 지면을 통한 집중적인 이슈 분석으로 협회원님들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할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작년 12월 중순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고 깊은 슬픔일수록 기쁨도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우리 모두 성실, 인내, 근면함의 덕을 지닌 소로부터 ‘우보만리’의 교훈을 되새기고, 삶의 지혜로 삼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사

변함없는 일상에서 변화하는 시대를 바라보며



글.
송주호 월간 '방송과기술' 편집장

안녕하세요, 월간 '방송과기술' 편집장 송주호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다사다난 했던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한다는 덕담. 작년에는 이런 생각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오늘날만큼 더 좋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널뛰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더 좋은 날들이 오는 것 같기도 했어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의 희망이 여지없이 깨지고 마네요. 심지어 새해는 좀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고 있고, 여러 사람과 모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지역으로 전국으로 세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것과 집에서 일하는 것 말고는, 작년과 재작년, 3년 전, 그리고 더 이전과도 그다지 다를 것이 없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역병이 유행하는 작금의 상황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장인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현재의 변화는 사회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도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말이죠. 저도 40대가 꺾인 구세대라, 온라인 세미나나 온라인 회의는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 없는 화면은 저를 너무나도

쉽게 졸음으로 인도하고, 눈빛의 교감이 없는 회의는 금세 맥락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편집위원 회의도 몇 번이나 하지 못했죠. 비대면으로 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충실하게 회의를 이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닥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다행히 방송은 온라인과 비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 오래된 매체임에도 오히려 중흥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전략 수립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마무리되면, 준비한 곳과 준비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송기술인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다 보니,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가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 VR/AR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개인에 맞춘 추천 알고리즘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AI가 한몫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영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노출을 컨트롤해야 할 10대 미만의 세대, 오랜 접촉으로 이제는 스마트폰이 익숙해진 노년층 등 새롭게 부각되는 세대를 위한 콘텐츠와 그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그만큼 월간 '방송과기술'이 소개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되어왔고, 생존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방송은 현재의 위기에 생존자가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기술인들이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월간 '방송과기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